

리아호나



리아호나



표지

사진 촬영: 제리 간스,
앞: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선교사들
뒤: 온두라스의 선교사들



친구들란 표지

저축하는 것은 선교사가 될 준비를 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8쪽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참조.

34쪽 참조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행복한 가정의 표시 토마스 에스 몬슨
- 25 방문 교육 메시지: 거룩한 성약을 지킬 때 오는 안전
- 26 선교 사업과 속죄 제프리 알 올런드 장로
- 44 말일성도의 소리: 모험 속으로
사랑의 보물 로미 바질라 코테라
뜻밖의 사건 왕슈추안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레슬리 아우구스토 토바르 코레아
- 48 리아호나 2001년 10월호 활용하기

청소년란

- 10 선교 사업에 관해 말씀하신 말일의 예언자들
- 12 여러분의 선교 사업 — 영적인 모험 데이비드 비 헤이트
- 17 질의 응답: 제가 선교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제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 20 당신의 부름 바바라 진 존스
- 24 준비하기
- 33 포스터: 가장 훌륭한 여러분이 되십시오
- 34 가장 중요한 단계 에프 데이비드 스탠리
- 38 선교사 훈련원에서 마빈 케이 가드너

친구들란

- 2 친구가 친구에게: 웨인 엠 헨콕 장로
- 4 신약 성서 이야기: 지상에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심;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 8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콜리스 클레이튼
- 10 노래: 엘리야로부터 온 진리 반자 와이 왓킨즈
- 12 함께 나누는 시간: 약속된 축복 다이앤 에스 니콜스
- 14 도량에는 황소가 없어요 실라 알과 프란시스 엠 우다드에게 들려준 이야기



38쪽 참조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황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엘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럼

편집인: 말린 케이 찰슨

고문: 제이 캔드 줄리, 더블류 플루 카, 스티븐 에이 앤드루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엘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쉰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발 존슨

부편집인: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베스 데일리

출판 보조: 코니 세익스피어

편집 보조: 레너 제이 카터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벤 캠펜

선임 디자이너: 세라 쿡

디자이너: 테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슨, 데니즈 커버, 켈리 프랫, 로

널드 에프 스프라크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외너

디지털 교정 인쇄: 제프 마틴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안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427호, 제38권, 제10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1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희

편집인: 정동찬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오드/지부/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82-2232-1441, 교한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1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리투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루마니아어, 마살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루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타어, 헝가리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1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October 2001 No.10.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리아호나의 도덕적 내용을 향유함

저는 몇몇 말일성도 친구들로부터 얼마 간 리아호나 (이태리어판)를 받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잡지를 읽는 것을 매우 즐기고 있습니다. 이 잡지에는 선하고 도덕적인 내용들, 특히 가족의 가치에 관한 아름다운 메시지들이 실려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갖고 있던 간에, 이 기사들은 모든 이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빈센조 세르시오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에 있는 교회의 친구

하나님께서 도안하십니다

큰 시련에 부딪혔을 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신앙과 의지와 힘을 갖는 것입니다.

옴은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고통을 겪는 나날 속에서, 그는 자신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중국에 그를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옴을 치료하셔서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그가 잃어버렸던 것을 모두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삶에 자수를 놓듯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작품의 뒷면 즉, 매듭과 잘린 실만을 보지만 그분은 작품 전체를 보십니다. 그분은 도안을 하시고, 밝은 색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검은 실도 포함시키십니다.

가이 에이 마텍,

프랑스 캉 지방부

아브랑슈 지부

신앙과 헌신의 모범

리아호나 (포르투갈어판)를 통하여, 우리는 전 세계의 교회 회원들에 관해 알게 됩니다. 지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과 간증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헌신의 모범은 다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영향을 미칩니다.

레오날다 벤추리니

브라질 캄피나스 카스텔로 스테이크

마테오 와드

모든 선한 것들에게로

1976년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서 침례를 받았을 때부터, 저는 리아호나 (스페인어판)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했을 때에도, 제가 사랑하는 이 잡지를 두고 간 적이 없습니다. 경전과 마찬가지로 리아호나에는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단계와 부름과 임무를 거치면서, 위안과 인도, 영감, 공과 보조 자료, 선교사 선물, 그리고 친구가 필요할 때면 저는 늘 리아호나를 찾았습니다. 저를 선한 모든 것들과 연결해 준 리아호나에 감사를 느낍니다.

루이사 세실리아 보네토 드 바미오

베네수엘라 바르키시메토 스테이크

누에바 세고비아 와드



행복한 가정의 표시

토마스 에스 몬슨

대관장단 제1보좌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추구한다면 그 종착지가 바로 행복일 것이며, 그 길은 덕, 의로움, 성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¹

이러한 보편적인 목표에 대한 설명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이 설명은 그 당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야 할 명확한 지도가 있는데도 왜 그토록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빈번히, 얼굴을 찌푸리는 자가 웃는 자보다 많고 절망이 기쁨을 꺾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이 지닌 신성한 가능성의 매우 낮은 차원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주의에 휩쓸리고 죄에 묶이며 세상 사람들의 행렬 가운데에서 길을 잃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고대의 빌립이 한 말을 외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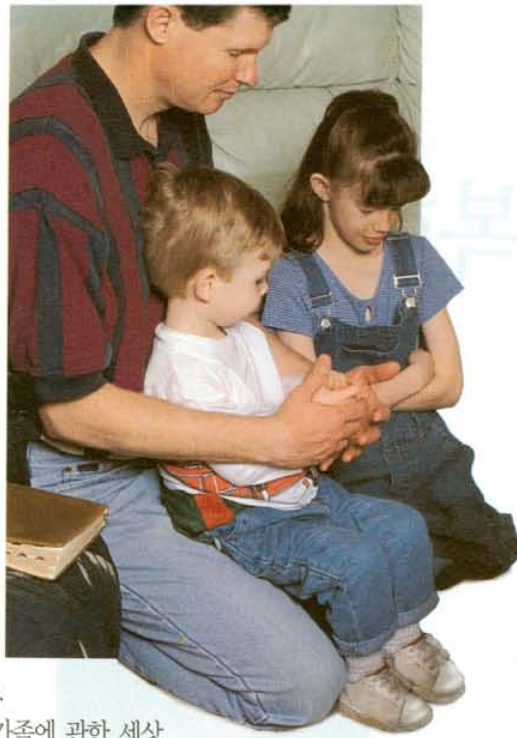
행복은 넘치는 사치품이나, 세상의 견해인 “즐거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은 이름을 가진 먼 장소에서 그것을 찾아서는 안됩니다. 행복은 가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노력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지상에 있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의 가정을 기억합니다. 흥미롭게도, 우리의 생각은 집이 크거나 작았다는 것, 이웃들이 잘 살았거나 못 살았다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가족으로서 함께 나누었던 경험들을 기억하고 기뻐합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실습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배운 것은 그곳을 떠날 때 우리가 하게 될 행동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영국의 전 수상인 마가렛 대처 여사는 다음과 같은 심오한 철학을 피력했습니다. “가정은 사회를 건축하는 자재입니다. 그것은 유아원, 학교, 병원, 휴양소, 피난처, 안식처입니다. 가정은 사회 전체를 포괄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며 우리의 남은 생을 준비하는 곳입니다.”³

“가정은 애정이 있는 곳입니다.” “정말 많은 생활”을 해야만 집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⁴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내 벗 나의 집뿐이리”⁵ 우리의 기억은 즐거운 옛 추억으로부터, 돌아가신 부모님과 성장한 가족,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로 옮겨 갑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건설하는 가정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직면합니다. 가정은 현명하게 건설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영원이란 짧은 여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잔잔한 날과 바람부는 날, 햇빛이 비치는 날과 그림자가 드리우는 날, 기쁜 날과 슬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노력한다면 우리의



우리 가정을 좀더 천국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뛰어난 건축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건설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정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사는 삶은 성공적인 지상 여정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목표에 이르는 길을 놓습니다.

1995년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가족에 관한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문의 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⁶

행복한 가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와 자매가 함께 사랑하며 모여 사는 대가족의 특징을 띠니다. 어떤 가정들은 편부모와 한두 명의 자녀들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어떤 가정들은 단 한명으로만 구성됩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의 수나 모습에 상관없이, 행복한 가정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행복한 가정의 “표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표시는

1. 기도하는 습관
2. 배움의 장소
3. 사랑의 유산
4. 간증의 보고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기도는 영혼의 소망, 말하든 안하든” 기도의 적용은 너무나 보편적이고 그 결과는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기도는 행복한 가정의 첫번째 표시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기도를 들을 때, 그들 역시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아주 최근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에 그들의 느낌, 소망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가족 기도는 죄를 방지하는 가장 훌륭한 대책이며, 따라서 기쁨과 행복의 가장 풍성한 공급자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함께 머문다”는 옛 말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우리의 예언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간에 십대 청소년을 포함하여, 아침 저녁 가족 기도를 드리는 전통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정말로 운이 좋은 것입니다.”⁷(1985년 10월호 성도의 빛, “우리 가정의 환경”, 고든 비 힝클리, 5쪽)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전형적인 말일성도 가정을 한 번 들여다볼까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각 자녀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눈을 감습니다. 달콤한 사랑과 단합, 화평의 영이 그 가정을 채웁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가 옳은 일을 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 그 아버지가 소중한 아들의 기도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가 딸이 동반자를 선택할 때 영감을 받고, 성전 결혼을 위해 준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은 십대의 딸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의 겸손하고 간절한 간구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그들 가족 안에 있는 이 훌륭한 아들이 합당하게 생활하여 적절한 때에 교회의 선교 지역에서 주님의 대사로써 봉사할 수 있도록 부름 받게 해 주실 것을 진지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러한 아들이,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소망이 가득한 젊은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족 기도와 개인 기도를 할 때, 그분에 대한 신앙과 신뢰를



갖고 합시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항상 기도하라는 권고에 귀 기울이기를 더디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기도가 나약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사람이 무릎을 꿇었을 때보다 더 위대해지는 때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내 프란시스와 저는 결혼한지 5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의식을 집행해 주신 벤자민 보우링 형제님은 이렇게 권고해 주셨습니다. “나는 신혼 부부인 두 분께 여러분이 갖게 될지도 모를 불화가 하루 이상 지속되지 않게 하는 확실한 공식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함께 무릎을 꿇고, 몬슨 형제, 하루는 형제가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몬슨 자매, 다음날 저녁에는 몬슨 자매가 큰 소리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단언하건대, 그날 생겼을지 모를 어떤 오해도 기도하는 동안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서로에 대한 가장 훌륭한 감정만이 남을 것입니다.”

38년 전 십이사도 평의회에 부름 받았을 때 교회의 제9대 대관장이신 맥케이 대관장은 나의 가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나는 이 기도의 공식과 그 효과에 대해 말씀 드리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커다란 가죽 의자에 기대어 앉으며 미소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에게 효과가 있었던 똑같은 공식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도 내내 가족의 삶을 축복해 왔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힘에 이르는 여권입니다.

배움의 장소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표시는 가정이 배움의 산실이 될 때 발견됩니다. 자신의 가족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있든지, 현재의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좀더 천국에 가깝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든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뛰어난 건축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건설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은 거룩한 땅이라고 경건하게 부르는 마을의 먼지나는 길 위를 걷고, 아름다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때, 그분은 종종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그분은 가정을 건설하는 일을 귀 기울여 듣는 자들의 삶과 관련지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분쟁하는 …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이렇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보라 나의 집은 질서의 집이요, 혼란의 집이 아니니라.”¹⁰

1832년 12월 27일 오하이오, 커틀랜드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주변을 정리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¹¹



현명하고 합당하게 집을 짓기 위해 이 보다 더 적절한 청사진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집은 마태복음에 설명되어 있는 건축 규정, 곧 “반석 위에”¹² 세워진 집, 우리가 사는 이 힘든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역경의 비, 반대의 홍수, 의심의 바람을 견딜 수 있는 집에 포함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서는 성전 건축을 위해 주어진 지침입니다. 오늘날에도 해당이 됩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¹³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 즉 우리가 짓는 가정의 안내자가 되게 합시다.

배움의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은 양서일 것입니다.

책은 지혜의 보고를 여는 열쇠
 책은 기쁨의 땅으로 통하는 관문
 책은 위로 향한 길이며
 책은 친구이니 어서 와 함께 읽어보세.¹⁴

독서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대중 문화 시대에 우리는 요약, 개조, 변질되고 난도당한 책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좋은 책을 조용히 앉아서 읽을 때 우리 마음은 고요해지고 정신은 고양됩니다.

어린 자녀들 또한 책을 좋아하며 부모가 책을 읽어 주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

우리의 모범은 따를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들이나 딸들이
 “나는 아버지를 따르고 싶어요” 또는
 “나도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라는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활합니까?

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¹⁵

표준 경전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배움의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몇 년 전에 우리는 손자들과 함께 교회의 인쇄 시설을 구경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선교용 물문경이 인쇄, 제본, 정장되어 나오는 과정을 지켜 보았습니다.

저는 어린 손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께서 물문경을 한 권씩 가져도 된다고 하시는구나. 한 권씩 골라 보렴. 고른 것은 너희 각자의 책이 될꺼야.”

아이들은 모두 책을 한 권씩 집었고, 물문경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다른 일들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아이들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물문경에 대한 솔직한 사랑의 표현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바로 가정 도서실에서 자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범은 따를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들이나 딸들이 “나는 아버지를 따르고 싶어요” 또는 “나도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활합니까? 도서실 선반에 얹혀, 표지에 내용이 가려진 책과는 달리, 우리의 생활은 숨길 수 없습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펼쳐진 책입니다.

사랑의 유산

행복한 가정의 세 번째 표시는 사랑의 유산입니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저는 이곳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부에노 거리에 사시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만나면 가까이 끌어당기시며 무척 행복해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할머니 무릎에 앉히시고 책을 읽어 주셨습



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막내 외삼촌 레이 내외가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레이 삼촌이 돌아 가시기 직전 그 분을 방문했을 때, 집 모퉁이에 있는 소화전이 오래 전 제가 그 위를 타고 올랐을 때 그 높다란 키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다운 현관은 옛 모습 그대로였으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벽에는 외숙모께서 수놓은 벽걸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선택하고 선택한 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우 자주 양보와 용서와 사과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그들 부모의 모범을 조용히 흡수할 때, 아이들이 작은 사랑의 교훈들을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부친은 인쇄업자로서 거의 매일을 오랜 시간 힘들게 일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아버지는 분명히 집에서 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은 가족 중 연로한 분들을 방문하여 그 분들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한 분은 아버지의 삼촌이신데 심한 관절염으로 다리를 절게 되어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버지는 저에게 ‘토미야, 이리 와 보렴. 큰 할아버지께 차 좀 태워 드리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28년 형 낚은 올

스모빌 차를 타고 우리는 큰 할아버지가 사시는 에이스 웨스트로 갔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가 계신 동안 저는 차 안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곧 아버지는 발을 저시는 큰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안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저는 차 문을 열어 드리곤 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애정에 찬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앞 자리에서 태워드리려 차 밖 풍경을 잘 보실 수 있게 해드리는 지 보았습니다.

차를 태워 드린 거기도 짧았고 대화도 별로 없었지만, 오, 얼마나 훌륭한 사랑의 실천입니까! 아버지는 저에게 한번도 성경책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읽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낡은 1928년형 올스모빌에 저와 큰 할아버지를 태우고 여러고로 가는 길을 달리셨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의 유산을 실천할 때, 우리는 물론경에 기록된 바와 같은 야곱의 꾸짖음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 너희의 착한 아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자녀들 앞에 못된 본을 보여 신망을 잃었으며, 저들의 흐느낌이 하나님께 우러러 너희를 고발하니”¹⁶

우리들의 가정이 사랑의 유산을 반영하기를 기원합니다.

간증의 보고

행복한 가정의 네 번째 표시는 간증의 보고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가장 첫째 되고 으뜸가는 기회는 가정에 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가족 각자가 환영 받고 "가정 안에"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습니다.”¹⁷ 라고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 관장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말일 성도 가정이란 그리스도께서 잠시 들리실 기회를 갖게 될 때 기꺼이 그곳에 거하고, 쉬고 싶은 곳이어야 합니다.”¹⁸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모만 강한 간증을 갖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확신에만 오래도록 의존할 수 없습니다.

구세주에 대한 사랑,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마음, 서로에 대한 순수한 존경 등은 간증을 자라게 하는 옥토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배우고 간증을 전하고 가족을 인도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인생 여정에는 울퉁불퉁한 길, 큰 파도, 심지어 이 시대에 몰아치는 소동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회원과 선교사들을 방문하는 동안, 간증의 보고가 얼마나 가성을 축복하고 성결케 할 수 있는지 보여준 훌륭한 예를 목격했습니다. 호레이스 디 엔사인 선교부장과 저는 시드니에서 다윈에 이르는 먼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다윈에서 저는 그 도시에 처음 세워지는 예배당 기공식을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 우리는 마운트 이사라는 광산촌에 잠시 들릴 예정이었습니다. 마운트 이사의 조그만 공항에 들어서자 한 여인이 그녀의 두 아이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디스 루텐이라고 하는 교회 회원이고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이번 비행기를 타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잠깐 머무시는 동안이라도 뵈려고 찾아 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은 비회원이며 자신과 두 아이가 그 지역에 있는 유일한 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탑승할 준비를 할 때, 루텐 자매는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아직 가시면 안돼요. 저는 교회를 너무나 그리워 해왔습니다.”

갑자기 확성기에서 기계 문제로 30분간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루텐 자매가 말했습니다. “제 기도가 방금 응답되었군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남편이 복음에 관심을 갖도록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매주 집에서 갖는 가정 초

등회에 남편도 참석시키고 그에게 복음의 산 간증이 되라고 권고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Children's Friend*(어린이의 친구: 잡지명)와 가족 교육에 도움이 될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결코 남편에 대해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운트 이사를 떠났으며 다시는 그곳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글썽이며 작별 인사를 하고 감사를 표하던 그 사랑스러운 어머니와 자녀들의 모습은 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베인에서 열린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말씀하면서 저는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과, 복음대로 생활하며 진리를 증거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모인 형제들에게 루텐 자매와, 그녀의 신앙과 결의가 내게 끼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텐 자매의 남편이 교회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는 더 훌륭한 모범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수 형제님, 제가 리차드 루텐입니다.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매는 제 아내입니다. 그 아이들은 (그의 음성이 떨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구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가족입니다. 제 소중한 아내의 끈기와 인내 덕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덕분입니다.” 모두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침묵은 사람들의 흐느낌으로 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집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도록 결심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가족 개개인이 환영 받고 “가정 안에”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게 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¹⁹

기도하는 습관

배움의 장소

사랑의 유산

간증의 보고라는 “행복한 가정의 표시”가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때 그분은 얼마나 환영받는 느낌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은 또 얼마나 기쁨에 차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주

1. 요셉 스미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1976)
2. 사도행전 8:31.
3. Nicholas Wood, “Thatcher Champions the Family,” *London Times*, 1988년 5월 26일.
4. Edgar A. Guest, “Home,” in *The Family Book of Best Loved Poems*, David L. George 편(1952), 151~152쪽.
5. John Howard Payne, “Mid Pleasures and Palaces,” *Hymns* (1948), 구 찬송가 177장.
6. 1998년 10월호 성도의 빛, 24쪽.
7. James Montgomery, “기도는 영혼의 소망”, 찬송가 (1985),

61장.

8. 1985년 10월호 성도의 빛, “우리 가정의 환경”, 고든 비 힝클리, 5쪽.
9. 마태복음 12:25.
10. 교리와 성약 132:8.
11. 교리와 성약 88:119.
12. 마태복음 7:25.
13. 고린도전서 3:16.
14. 에밀리 포울슨.
15. 교리와 성약 88:118.
16. 야곱서 2:35.
17. Priesthood Home Teaching Handbook, 개정판(1967), ii~iii쪽.
18. 1947년 10월 대회 보고, 120쪽, *Gospel Ideals: Selections from the Discourses of David O. McKay* (1953), 169쪽.
19. 요한계시록 3:20.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행복한 가정의 표시는 가족의 규모가 작든 크든, 가족 구성원이 단 한명이든 상관없이 모든 가족에게 적용된다.
2. 기도는 영적인 힘에 이르는 여권이다.
3. 교회의 표준 경전은 우리가 배움을 구해야 할 “가장 좋은 책”이다.
4. 가족을 돌보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전통이다.
5. 구세주에 대한 사랑,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마음, 서로에 대한 순수한 존경 등은 간증을 자라게 하는 옥토가 될 것이다.



선교 사업에 관해 말씀하신 말일의 예언자들

아래 사진에 있는 선교사들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이 되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선교 사업에 관한
그들의 경험과 간증이다.

그림: 앨빈 기틴스, 요셉 스미스



요셉 스미스 (1805~1844)
초대 대관장

“우리 선교사들은 여러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팔레스타인, 뉴질랜드, 호주, 인도 등지에서 진리의 표준이 수립되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어떠한 손도 이 사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핏박이 일고, 폭도들이 규합하고, 군대가 소집되고, 모략과 중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당당하고 기품있게 나아가 마침내 모든 대륙에 스며 들고, 모든 기후의 땅을 찾으며, 모든 나라를 휩쓸고, 모든 사람의 귀에 울릴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는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4:540, 1982년 7월호 성도의 빛,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라”, 스펜서 더블류 김블, 4~5쪽)



윌포드 우드럽 (1807~1898)
제4대 대관장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을 때, 윌포드 우드럽은 순종으로 인해 축복을 받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었습니다. 주님은 간단히 ‘남쪽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역마차에 올라 129킬로 미터를 달려 갔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발길을 내디딘

↑ 곳은 히어포드셔어에 있는 존 벤하우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선지 반 시간 후에 나는 주께서 왜 나를 그 곳으로 보내셨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고대의 반차에 대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가르친 것과 같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내가 그곳에 도착한지 한달 만에 600명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8개월 동안 일하면서 나는 1,800명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곳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은 내가 그 일을 하도록 그 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Deseret Weekly*, 1896년 11월 7일자, 643쪽, 1979년 10월호 성도의 빛, “영성을 키움”, 하워드 더블류 헌터, 36쪽)



조지 앨버트 스미스 (1870~1951)
제8대 대관장

조지 앨버트 스미스는 사우던 스테이크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그분께 봉사하는 자들을 진실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딴 시골에서 복음을 전파한 후, 스미스 장로와 다섯 명의 선교사들은 밖에 있는 화난 군중들의 외침 소리에 한 밤중에 잠을 깬다. 폭도들이 건물을 에워쌌고 집안으로 총을 쏘기 시작했다. 스미스 대관장은 후에 이렇게 기록했다. “파편들이 우리들 머리 위에서 이리 저리 날아

다녔습니다. ... 그 곳에 누워 있으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공포에 찬 사건들 중에 하나를 경험하면서도 저는 매우 침착했습니다. 전혀 공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한, 주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A Story to Tell [1945], 155~156쪽)



데이비드 오 맥케이 (1873~1970)

제9대 대관장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데이비드 오 맥케이의 간증은 그가 스코트랜드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에 왔다. 그는 “모두가 주님의 영의 압도적인 힘을 느낀” 신권회에 참석했다. 그는 후에 이렇게 회상했다. “그러한 감정은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심 많은 청소년기에 초원의 언덕 위에서 홀로 마음을 다해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일은 제게, 진지한 기도는 ‘언제 어느 곳에선가’ 응답된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같은 모임에서 맥케이 장로의 선교부장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로님이 그 신앙을 지키면, 언젠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평의회]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Two Significant Statements,” *Deseret News*, 1934년 10월 27일자, 8쪽)



에즈라 태프트 벤슨 (1899~1994)

제13대 대관장

1920년대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와 그의 동반자가 회원들과 비회원들이 함께 참석하는 성찬식에서 말씀을 해달라는 권유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했다. “예배당은 꽉 차 있었습니다.” 벤슨 장로는 후에 이렇게 회상했다. “나의 동반자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에 관해 말씀할 계획을 세웠으며, 나는 배도에 관해 말씀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모임에는 주

님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배도에 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의 거룩한 사명과 몰몬경의 진실성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몇몇 사람들이 선교사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에 우리들은 몰몬 교리가 참되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침례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벤슨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바로 저의 첫 번째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저는 주님께 끊임없이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1984년 7월호 *성도의 벗*,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 에즈라 태프트 벤슨, 70쪽)



고든 비 힝클리 (1910~)

제15대 대관장

1930년대 대공황기, 선교사로 봉사하는 젊은이들이 몇 안되던 시절, 고든 비 힝클리는 영국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도착한지 얼마 안 되어, 그는 낙담하게 되었고 자신의 시간과 부친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부친께 편지를 썼는데, 부친은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제안할 것은 단 하나 밖에 없다. 자신을 잊고 일하러 나가거라.”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무릎 꿇고 주님과 굳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자신을 잊으려 노력할 것이며 그분께 봉사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잃겠다고 성약을 맺었습니다. 1933년 7월의 그 날은 제 결심의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빛이 제 생활에 들어왔고 새로운 기쁨이 마음에 흘러 들었습니다.” (1987년 11월호 *성도의 벗*, 대관장단 메시지: 세상에 선포한다, 고든 비 힝클리, 6쪽 참조)

수년 후에, 그는 그의 선교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경험에 대해 진심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 그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를 받아들이고 그 원리대로 생활할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예언자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의 참되고 살아 있는 사업이라는 확신과 지식이 제 안에 확실히 박혔습니다.”(1986년 7월호 *성도의 벗*, “전도의 문제”, 고든 비 힝클리, 43~44쪽) □

여러분의 선교 사업 — 영적인 모험



선교 사업은 여러분이 언제나 즐겁게
기억하게 될 경험이며, 그것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비 헤이트
심이사도 정원회

교회의 선교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지상의 모든 주민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의 60억 인구가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유와 메시지를 가지고 갈 의무와 책임을 가진 축복 받은 백성입니다.

매주, 약 800건의 선교사 추천서가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선교사부에 도착합니다. 이 추천서들은 구세주가 선언하신 책임에 응하는 전 세계의 청년 청년들의 신앙과 순종을 나타내 줍니다.

스테이크장 또는 선교부장이 예비 선교사를 추천하면 머지 않아, 그렇게 오래 기다려온 편지 즉 선교사 부름장이 우편함에 도착합니다.

이 우편물 속에는 처음에는 지나쳐 버리기 쉬운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 부름 수락서로서 선교사가 대관장단에 공식적으로 부름을 받아들인다고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 양식은 15줄로 되어 있는데 선교사는 이곳에 주님께 봉사하는 가장 설레는 기회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편지는 대개 자필로 간략하고 솔직하게 씁니다. 그러나 이 몇 마디 말들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깊은 뜻을 전달합니다. 각각의 편지들 모두가 고무적인 신앙의 이야기들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제 인생 중 2년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편지들은 구세주에 대한 신앙과 그분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신앙은 모든

행동의 동기”라고 기록했습니다.(*Lectures on Faith* [1985], 1~2쪽)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그리스도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게 합니다.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이면서, 선교사는 자신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충분한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귀환 선교사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축복은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구세주에 대한 신앙은 영혼의 닻이 됩니다.

“봉사하라는 이 부름을 받아들이면서 제가 느끼는 행복과 기쁨을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꺼이 제 인생의 2년을 복음 전파에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수락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수락하더라는 단어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말은 받은 것이나 제공된 어떤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에 호의적으로 응하며, 그것을 옹고 합당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또한 어떤 단체나 지역 사회에서 인정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의미에서 볼 때, 이 말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부름을 준 예언자를 기꺼이 따른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선교사 “부름”은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임무”는 일하도록 지명 받은 지역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수락 편지는 주님의 뜻대

선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떤 큰 모험을 할 때와 같은 느낌 즉, 설레임, 얼마간의 걱정, 그리고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선교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미지의 세계로 걸어 들어 갑니다.





로 부름과 임무 모두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긴 고투였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후에, 저는 제 자신의 행동에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데 거의 일년 반이 걸렸습니다.”

“지은 죄를 기억하여 고난을 받으신”(엘마서 36:17) 엘마의 경험과 같이, 긴 기간의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편지들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또한 회개와 용서를 통해 오는 “감미롭고 아름다운” 기쁨에 대해서도 말합니다.(엘마서 36:21 참조)

주님께서 선교사들에게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명하십니다. “내 앞에서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러한 연후에 온 세상에 나아가 나의 복음을 아직 받아 보지 못한 산자 모두에게 전파하라.”(교리와 성약 112:28) “하나님으로부터 성임되어 파송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권세는 “정결하게 되어 모든 죄로부터 깨끗이”(교리와 성약 50:26~28 참조)된 자들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임 선교 사업은 교회의 대관장의 영감에 의해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하나의 특권이지 당연히 행사해야 할 권리가 아닙니다. 선교 사업은 문자 그대로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 대한 봉사입니다. 선교 사업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선교사 개개인의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봉사를 통해 항상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 지라도,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2000년 12월 12일자 서한) 신권 지도자들은 선교사가 영적,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봉사하기에 합당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자세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침에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 부름을 주는 것은 주님과 교회와 예비 선교사에게 몹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수많은 청남 청년에게 감사합니다. 회개하여 속죄의 감미로운 기쁨을 맛보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체적, 정서적,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봉사할 수 없는 분들께서는 부모님과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봉사할 기회를 찾으도록 권유합니다.

제 자신의 신앙은, 하나님께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계신 예언자의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의해 지속적으로 강화됩니다.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야구에 대한 강한 열정이 그것을 어렵게 했습니다.”

수많은 수락 편지들이 희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위에 인용한 젊은이는 대학에서 야구를 하고 후에 프로 야구단에 입단하겠다는 일생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을 잘 밟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사 숙고 한 끝에,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결심이 선 후에는, 인생에서 우선 순위가 분명해 졌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세상적인 것을 희생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Lectures on Faith, 69쪽) 우리가 매우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희생에 대해서도 풍성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예비 선교사들은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 여자 친구, 음악, 수입이 좋은 직장, 기타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편지를 씁니다. 너무 많은 회원들이 그러한 세상적인 보물들로 인해 영적인 기회에 대해 눈이 멀고, 그들에게 예임된 사명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한편, 우리는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분들로 인해 끊임없이 감탄하며 기쁨을 느낍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아무런 인생의 목표가 없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서 놀랐습니다. 마침내, 두 선교사는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것과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알려 줄 것입니다.”

물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온전하신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씻어 주시는지라”(모로나이서 8:16) 예비 선교사들이 인생의 목적과 주님의 사랑을 배울 때, 그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연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 두려움이 스스로가 만들어 낸 환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선교사들에게 장애물에 맞서 이길 힘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나의 능력을 두려워하여 떠는 자는 강하게 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시와 진리에 따라 찬양과 지혜의 열매를 맺으리라”(교리와 성약 52:17) 해롤드 비 리 대관장(1893~1973)은 여러 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는

다 음 이야기는 현재 봉사하고 있는 몇몇 선교사들이 그들이 어떻게 봉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한 내용들이다.

빅토르 마누엘 에스피노자 산체스 장로

페루 아반카이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 전, 저는 의대 졸업을 1년 남 겨두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2년 동안 학교를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은 저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 속에, 선교사로 봉사할 때가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으며, 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 탐 자매, 홍콩

“저는 홍콩에 있는 친구들에게 선교 사업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하지?’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매우 행복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야’”

저스틴 마이클 콜링스, 미국 유타 프로보

“저는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어느 사람보다 더욱 많은 일을 수행[한]’(교리와 성약 135:3)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해 배울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감탄하며, 교화되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셉 형제에 대해 간증하는 것은 매우 담대한 일이지만 말일의 하나님의 왕국의 사업 자체가 담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요셉이 그의 예언자라는 것을 변명 없이, 우리 믿음의 단순함을 변명할 필요 없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한 젊은이는 감독에게 그가 토론을 익히거나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두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주님의 형편없는 대표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예레미야, 에녹, 기타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부름에 대해 부적합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해야 할 말을 알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출애굽기 4:11~12; 예레미야서 1:7~9; 모세서 6:32~24 참조) 오늘날의 선교사들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입을 열어 한다면 같은 약속을 받습니다. “이 백성을 향하여 너희 목소리를 높이라. 내가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생각을 말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말해야 할 바로 그 시각 바로 그 순간에 너희가 말할 바를 얻게 될 것이니라.”(고리와 성약 100:5~6)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1895~1985)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는 데에는 영적인 모험이 있습니다.”(“It Becometh Every Man,” *Ensign*, 1977년 10월 호, 7쪽) 선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어떤 큰 모험을 할 때와 같은 느낌 즉, 설레임, 얼마간의 걱정, 그리고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선교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미지의 세계로 걸어 들어 갑니다. 어쩌면 낯선 문화가 있는 먼 이국 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전에 만나 본적도 없는 동반자와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교 사업의 정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그들이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를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간증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조롱거리나 비웃음 거리가 되는 위협에 놓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험의 속성이며, 다른 많은 모험들처럼 우리는 여생동안 그것에 대해 기쁘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 부름 수락서는 풍성한 영성과 신앙을 보여줍니다. 제 자신의 신앙은, 하나님께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계신 예언자의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분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강화됩니다. 자격있는 모든 청년들과 그런 소망이 있는 모든 청년들이 선교 사업의 놀라운 모험을 경험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

에리카 비안스카 자매, 체코 공화국 브르노

“부모님과 제가 토론을 공부하면서 감명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선교사들이 우리를 아주 선하게 대했으며 그들 서로에게도 아주 선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복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세자르 알투로 로드리구에즈 에르난데스 장로

멕시코 오브레훈

“저는 대학, 직장, 교회 부름, 그리고 가족을 떠났으며 유럽과 아시아로 무용 공연을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천국과 하나님을 더욱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ايا꼬 오노 자매, 일본 삿포로

“저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기쁩니다.”

키이스 제이 스키미트 장로, 미국 캘리포니아 세리단

“저의 가족 중에서 저만이 유일하게 교회에 다니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족에게 선교 사업을 하러 가겠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제가 귀환한 뒤 그들과 함께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졌으며, 선교 사업 하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나 바데아 자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저는 선교 사업을 사랑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돕겠다는 소망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복음이 저의 인생과 가족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



질의 응답

제가 선교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제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공식적으로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리아호나의 대답

종종 교회 회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왜 어떤 특정한 일들을 하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주님의 계명을 제한을 가하고 혹독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행복과 발전과 보호를 가져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선교 사업에 관해 설명하는 첫번째 단계는 그들에게 복음이 여러분의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많은 시간을 들이는 관심사나 활동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훌륭한 학생, 운동 선수, 또는 예술가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공부하고, 연습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처럼, 여러분은 교회에 시간을 바친다고 설명하십시오. 적절하다면, 여러분의 간증을 전하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은 주님과 그분의 복음에 대한 헌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돕겠다는 소망의

표현이라고 말하십시오.

다음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부가적인 축복으로 따라온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귀환 선교사들은 대개 그들이 배운 자제심, 근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 예산 세우기, 인내 등과 같은 것들에 대해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많은 선교사들이 다른 언어도 배우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기도 한다고 말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들이 교육적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대부분의 귀환 선교사들은 그들의 선교 사업에 대해 열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그들이 경험한 것을 나누는 데 열심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선교사 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귀환 선교사를 만나보면 대부분 그들이 치른 희생과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에 관한 질문에 기쁘고 긍정적으로 답할 기회를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현재 회원 선교사가 됨으로써 장차 전임 선교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독자의 대답

저는 친구들에게 선교사들을 통해 교회와 친숙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선교 사업은 주님의 복음 빛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하는 길이며, 이 사랑의 봉사에 참여하는 일은 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가 그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복음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에게 올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교리와 성약 18:15~16 참조)

아니스 칸린쉬,

라트비아 리가 지방부

리가 센트럴 지부

선교 사업은 봉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 사업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도록 돕는 것입니다.

타히아 모우파

타히티 라로마타이 스테이크

우트로아 와드

성신의 도움으로,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신앙과 간증은 여러분의 용모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의 근원은 복음이며, 선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똑같은 행복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치앙 아린

타이완 카오슝 스테이크

카오슝 6와드

친구들에게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이며, 여러분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친구들을 이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카테리나 로디오노바

러시아 피터스버그 북 지방부

세인트 피터스버그 첼트랄니 지부

제가 선교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친구들에게 이해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제 생활에서 일어난 변화를 그들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사업은 많은 축복을 가져온다고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으므로 그들은 선교사로 나가서 그분께 보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그들은 그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율리아 이호리브나 코사레츠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선교부

플타바 첼트랄니 지부

저의 상사, 학급 친구들, 이웃과 친척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서 일과 학업과 가족을 버리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 일에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더욱 더 염려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구원의 계획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파리아 보아트 장로

브라질 마세이오 선교부

저는 하나님께 제 친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교회에 대한 제 간증과 물문경에 대한 느낌,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큰 소망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몇몇 친구들이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메이 제이 티콩

필리핀 다바오 부항인 스테이크

라낭 와드



아니스 킨린쉬



타히아 모우파



치앙 아린



예카테리나 로디오노바



율리아 이호리브나 코사레츠키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파리아 보아트 장로



메이 제이 티콩



마크 아미앙 장로



이블린 알바레스 자매



로베르토 파체코 장로



함베르토 마틴스 드
마라우조 이세 장로



벤자민 몰람보와 몰람보

환송 모임에서, 저는 선교사로 나가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자, 친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주님의 영에 의해 감동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현재 그들 중 몇몇은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크 아미앙 장로
나이지리아 라고스 선교부

제 친구 엘리야나와 저는 학업과 직업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 사업에 대해 기도했을 때, 저는 긍정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엘리야나에게 복음이 제게 미친 영향을 말했습니다. 간단한 간증과, 함께 한 성신의 영향력으로 그녀는 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블린 알바레스 자매
페루 트르히요 선교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이 진리를 나누기 위해 모든 것을 남겨두고 선교 사업을 나온 선교사들로부터 어떻게 처음 그것을 들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이제 제가 복음의 기쁨을 나눌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로베르토 파체코 장로
페루 리마 센트럴 선교부

고등학교 때 저는 선교사로 봉사할 계획을 세운 이유와, 제 삶에 그리고 제가 만나게 될 사람들의 삶에 선교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교회 서적을 나누

어 주어 학급 친구들이 선교 사업의 큰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함베르토 마틴스 드 마라우조 이세 장로 브라질库里티바 선교부

제 친구들이 선교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경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제가 들려준 이야기들입니다.

벤자민 몰람보와 몰람보
빈자 와드
콩코 민주 공화국 킌사사 스테이크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 주시면 질의 응답란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을 200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S AND ANSWERS 12/01,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CUR-Liahona-IMag@lds-church.org.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로 답을 타자 치거나 정서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채택되려면 성명, 나이, 주소와 와드 및 스테이크(지부 및 지방부) 명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진 한 장을 첨부해 주십시오. 사진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선택된 몇 가지 답이 실릴 것입니다. □

질문: 저는 많은 시간 슬픔을 느낍니다. 보다 행복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의 부름

바바라 진 존스

사진 삽화: 제드 에이 콜러크

감독이나 지부장과 첫 번째 접견에서부터, 하얀 봉투에 담겨 오는 부름장을 받는 두근거리는 순간까지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기에 담아 보았습니다.

말 할 것도 없이, 부름장을 받는 일은 예비 선교사의 생활에서 가장 신나면서도 고민스러운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교사 추천서가 스테이크장이나 선교부장의 손을 떠나서 여러분 집의 편지함에 선교사 부름장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까지 그 긴장되는 몇 주간, 선교사 추천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다면 이 기사를 계속해서 읽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의 각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서류를 성공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서류 작성

선교 사업을 떠나기 약 4개월 전에, 개인 접견을 하고 선교사 추천서를 받기 위해 여러분의 감독 또는 지부장과 만날 약속을 하십시오. 이 서류에는 서류 작성을 위한 점검표, 선교사 추천서 및 신권 지도자 양식, 건강 및 구강 평가 기록서, 보험 양식이 들어 있습니다.

선교사 추천서 양식에 여러분은 자신의 배경,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과 언어를 배우는 능력, 학력, 선교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법을 포함해 여러분 자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닌 자신이 이 양식을 기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능력에 대해 완전히 솔직하게 적으십시오.

선교사 표준에 따라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한 여러분의 사진 한 장을 이 양식에 첨부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한 분께서 여러분이 제공한 개인 정보를 읽고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이 부름 받을 곳에 관해 영감을 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진은 또한 여러분이 봉사할 선교부를 지명 받은 후에 여러분의 선교 부장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관해 선교부장에게 주는 첫 인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추천서 양식을 작성하기 시작할 때, 그 즉시 치과 의사 및 의사와 진료 약속을 정하십시오. 전문 의료인을 일찍 만났으로써, 문제가 있을 경우 치료로 인해 선교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관해 의료 양식에 적힌, 여러분 자신과 의사들의 자세하고 솔직한 평가가 여러분이 봉사할 선교부를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양식들이 완전히 작성되고 또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접견을 하기 위해 감독 또는 지부장과 만나십시오. 그 분이 여러분이 합당하고 또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면, 스테이크장 또는 선교부장과 접견하도록 추천해 주실 것입니다.



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아직까지 합당하게 해결되지 않은 범법 사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권 지도자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어떤 예비 선교사도, 해결되지 않은 범법 사실을 무시한 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백을 미루면, 선교사 부름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적절한 시간 동안 충분히 회개의 과정을 마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서류 처리

신권 지도자들은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에, 신권 지도자의 소견 및 제언 양식을 작성해 지역 사무실로 보낼 것입니다. 서류에 있는 정보들은 선교사 부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컴퓨터 디스크에 입력됩니다. 전자 시스템에 의한 정보 처리로 인해 선교사부는 한 해에 35,000건의 부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천서가 담긴 디스크와 인쇄물은 지역 사무실에서 다시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선교사부로 보내지며, 그곳에서 디스크에 담긴 정보들은 선교사부 컴퓨터 시스템으로 옮겨져 저장됩니다.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혹은 여러분이 봉사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보다 90일 이상 앞서 서류가 도착한 경우에, 이 서류들은 지역 사무실로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류를 다시 제출해 달라거나 문제를 조치해 달라는 유의 사항이 첨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 위원회가 여러분의 건강 및 구강 평가 기록서를 살펴보고 그것들이 완전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러분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전임 선교사의 고된 생활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추천서 양식이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 후에야 여러분은 지



선교 사업을 떠나기 약 4개월 전에 여러분의 감독 또는 지부장과 개인 접견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스스로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정확하고 솔직하게 작성하고, 선교사 표준에 따라 복잡과 용모를 단정히 한 여러분의 사진 한 장을 첨부하십시오.



선교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한 빨리 치과 의사 및 의사와 진료 약속을 정하십시오.



명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부름의 지명

각각의 선교사는 교회의 대관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선교부 지명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이 하게 되는데, 그 분들은 예언자로부터 그 일을 하도록 임무 지명과 권능을 받습니다.

매주, 지명되는 선교사의 수에 따라 두 명에서 네 명까지의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이 교회 본부의 별도의 방에서 만납니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거룩한 인도를 구한 후에, 각 사도께서 컴퓨터 화면 앞에 앉습니다. 그 화면에 한 번에 한 명씩 예비 선교사의 사진과 개인 정보가 교회 모든 선교부의 현재 필요 사항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각 선교사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특정한 선교부에 지명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는 동안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는 “나는 하나님의 영감이 이런 신성한 임무 지명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The Army of the Lord”, *엔사인*, 1979년 5월호, 36쪽)라고 말했습니다.

부름을 받음

여러분이 부름과 지명을 받은 후, 곧 부름장과 선교 사업에 관한 정보가 담긴 패키지가 여러분에게 우송됩니다. 부름을 받기까지의 과정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서류를 적절하게

선교사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2주에서 6주 후, 여러분은 자신의 부름장을 열어 보는 흥분되고 영적인 경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작성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2주에서 6주까지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선교사 부름장이 담긴 봉투를 뜯어 본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흥분되고 영적인 경험이 될 수 있는지 잘 알 것입니다. 유타 주 테일러스빌의 조엘 힐러는 어머니께서, 식탁에 놓아 두신 하얀 봉투를 보았을 때, 너무나 가슴이 뛰어서 몇 시간 후 그의 가족과 가까운 두 친구가 함께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조엘의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그 세 시간 후에, 가족과 친구들은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웃으며 그가 어디에서 선교 사업을 하게 될지 추측들을 해 보았고, 즐거운 분위기가 방 안에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조엘이 그 봉투를 열고 예언자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영적인 정적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힐러 장로님, 장로님은 이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조엘은 그 편지를 계속 읽어 나가면서 느낀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부름을 받게 된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영은 이것이 옳은 일이며 바로 이 선교부가 저에게 꼭 맞는 선교부라는 것을 즉시 증거해 주었습니다. 인생에 단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이었습니다.” □



양식들이 완전하게 작성되었을 때, 다시
접견을 하기 위해 감독 또는 지부장과
만나십시오.



신권 지도자가 여러분이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 여러분에 관한 정보는 지역 회장단을 거쳐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선교사부로
보내집니다.



여러분이 받는 선교사 부름은 교회의 대관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준비하기

가장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 나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다음은 현임 선교사와 다른 독자들이 주는 조언들이다.

- 매일 기도한다. 여러분의 준비를 도와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다.
- 주님께서는 합당한 선교사를 필요로 하신다. 매일 계명에 따라 생활한다.
-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 수업에 참석하고 경청한다.
- 경전, 특히 물몬경을 매일 읽는다. 모로나이서 10장 3~5절에 있는 모로나이의 약속을 적용해 본다.
- 여러분이 받은 부름이나 임무 지명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책임감을 배운다.(교리와 성약 88:80 참조) 예를 들어 가정 복음 교육은 다른 사람과 신뢰 관계를 쌓는 법을 배우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다.
- 갈 수 있는 만큼 자주 성전에 간다.
-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낸다.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여러분은 가족들이 보고 싶어 할 것이다. 가족 기도, 가정의 밤, 그리고 다른 가족 활동에 참여한다.
- 가정의 밤을 갖는 동안, 경전과 선교사 토론을 사용해 여러분의 가족을 가르쳐 본다.
-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해 그곳에서

영을 얻는다.

-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다. 이미 받았다면 축복문을 자주 읽어 본다.
-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들을 친절히 대하는 연습을 한다.
- 선교 사업은 고된 일이다. 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을 단련한다.
- 지금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할 수 있을 때마다 선교사 기금을 따로 저축해 놓는다.
- 전임 선교사, 와드나 지부의 선교 책임자와 함께 일한다.

- 전임 선교사들과 한 팀이 되어 가르치고 또 그들이 토론을 가르치는 것을 관찰한다.
- 친구들에게 토론을 가르쳐 본다.
- 여러분의 와드 또는 지부 침례식에 참석한다.
-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눈다.
- 비회원 친구들을 교회와 활동 모임에 초대한다.
- 선교사 준비반에 참석한다.
- 신앙개조를 외운다.

거룩한 성약을 지킬 때 오는 안전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우리는 역경을 견디며, 유혹에 대항하고,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누릴 힘을 축복으로 받는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가 성약을 지킨다면 성약은 우리를 영적으로 안전하게 지켜 줄 것입니다.”(“내가 이긴 것 같이 ... 이기라”, 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79쪽)

성약이란 무엇인가?

성약은 하나님과 한 개인 또는 하나님과 일단의 사람들 간의 양방향적인 거룩한 합의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약의 조항들을 정하신다. 우리가 그 성약의 조항들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성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는다. 우리와 사랑의 유대 관계에 있는 그분께서는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밖에 없으나”(교리와 성약 82:10)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명은 성약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성약은 침례, 성찬, 그리고 성전에서 집행되는, 승영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의식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약을 지킬 때 오는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키는 모든 성약에는 구체적인 축복이 따른다. 예를 들면,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고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해의 왕국의 결혼이라는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조항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여러 천사와 신들 옆을 지나가서 저마다 ... 각기 승영에 이르러 온갖 일에 영광을”(교리와 성약 132:19)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우리가 거룩한 성약에 순종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는 원수로부터 보호받는 권세를 축복 받는다. 특별히 시련의 시기에 성약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성약을 지킴으로써, 성신을 동반하고 사랑의 힘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 성약을 받아들이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영적인 힘이 역사합니다.”(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32쪽)

개인적인 연결 고리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한 자매가 하나님의 성약이 얼마나 즐겁고 개인적인 것인지 알게 되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성찬을 집행하려고 그녀의 집에 갔다. 그녀는 그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들이 무릎을 꿇고 — 그녀만을 위해 — 빵과 물을 축복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이 한 조각의 빵이 담긴 성찬기를, 그 다음에는 조그만 성찬 컵 하나를 올려 놓은 성찬기를 들었을 때를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상징물을 취할 때, 저는 저와 구세주와의 어떤 개인적인 연결 고리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속죄가 참으로 저를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저는 새롭게 되었으며 저만이 가지고 있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들과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온전히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필멸의 세상을 우리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성약을 주셨다. 성약을 부지런히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더욱 더 많은 영적인 안전을 찾게 될 것이다. □



선교 사업과 속죄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 언자 요셉 스미스께서 “우리 종교와
연관된” 모든 것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부수되는 것들”이라고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¹ 마찬가지로, 그리고 같은 이유로, 선교사나 회원이 가르치는 모든 진리는 모든 시대의 중심이 되는 메시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요 구속주라는 메시지에 부수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 그분의 영의 번민을 완전히 바치셔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최초의 범법, 그리고 아담의 시대로부터 이 세상에 살았고 또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들 가운데 일부는 무조건적인데, 부활의 은사가 그렇습니다. 어떤 축복들은 매우 조건적인 것들로서, 계명을 지키고 의식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생활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느 쪽이든,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바로 이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²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가능하게 한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가 부름을 받아 가르치고 있는 위대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계획의 중심 사실이며 극히 중요한 토대이고 또 첫째되는 교리입니다.

침례의 선행 조건

아마도 이 교리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선교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지식이 선교 사업의 토론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고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들의 한 지역 모임에서 저는 선교사들에게 구도자들이 토론을 마치고 난 뒤, 어떤 일을 행하기를 바라느냐고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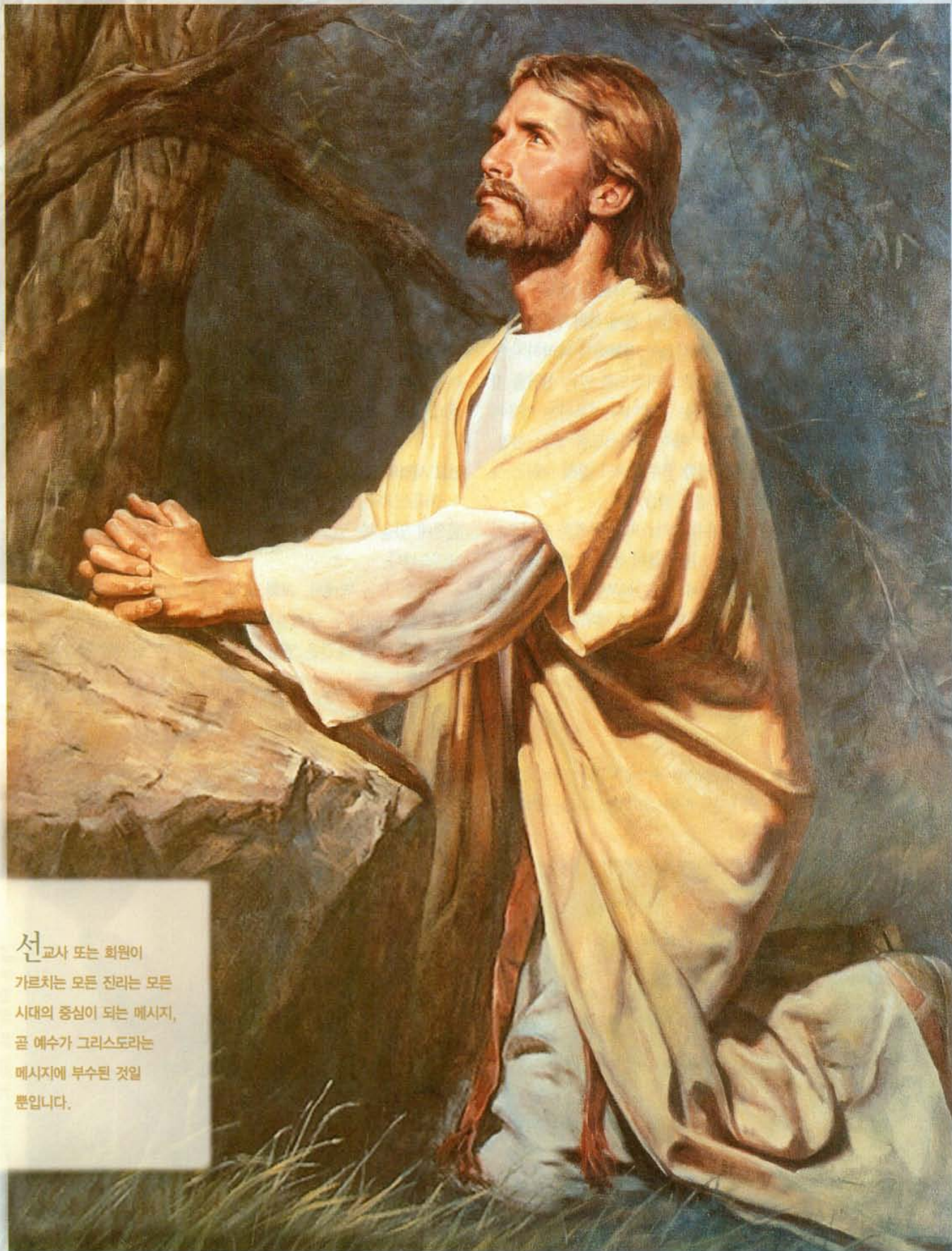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이쯤 되면 그들은 의혹에 찬 눈빛을 보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시험이군! 이걸 첫번째 토론에 관한 시험이야. “몰몬경을 읽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기도입니다!” 한 장로가 외칩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자매들 중 한 명이 단언합니다. 또 누군가가 대답합니다. “토론을 모두 마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1토론에 나오는 결심 본보기는 대부분 다 말할 것 같군요. 하지만 여러분은 구도자들이 그 밖에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합니까?”

“침례입니다!” 합창을 하듯 다시 한번 외칩니다.

저는 호소합니다. “장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침례라는 대답



선교사 또는 회원이 가르치는 모든 진리는 모든 시대의 중심이 되는 메시지,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에 부수된 것일 뿐입니다.

은 이미 나왔지만, 저는 계속 묻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들은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토론에 나오는 결심 본보기임에 틀림없어. 어떤 선교사가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선교사가 외칩니다. “십일조입니다.” 대답은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우리가 구도자들에게 그들이 침례 받기 전에 행하기를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를 우리 선교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 것, 그리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의식은 제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제이, 회개, 제삼,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제사,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임”³ 믿습니다.

개종자의 새로운 인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가져오기 위한 그분의 회개에 대한 믿음 — 곧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이 순간에도 살아 계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과 승영의 열쇠를 지니고 계시다는 확신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후에는 참된 회개, 곧 깨끗하고 새

롭게 되며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보여 주는 회개, 우리로 하여금 속죄의 충분한 축복을 간구하게 하는 회개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죄사유함을 위한 침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침례는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신앙개조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점은 아닙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죄사유함을 위한 침례이며, 그것은 여러분과 제 자신 그리고 선교사와 구도자가 다시 속죄,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선교 사업의 중심인 속죄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가 항상 회원들과 구도자들 의식의 최전선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한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면에서, 교회 모임, 특히 성찬식이 영적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구도자들은 성찬식에서, 선교사들에게 배울 때 느끼는 것과 똑같은 영을 마땅히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것세마네를 통과하며 또한 길보리 언덕 위에 있습니다. 영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그분,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침례식은

이 의식과 그리스도의

중요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 의식으로 그 속죄가

유효한 것이

됩니다.

구도자들에게 그들이 보게 될 성찬 의식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그 분들이 모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선교사들은 구도자들에게 경전에 나와 있는 성찬 기도를 읽어 주거나 좋아하는 성찬 찬송의 가사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새로운 방문자들이 성찬식에 참석할 때 강력한 배움의 시간을 경험하도록 도움을 줄 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갖는 침례식을 영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둔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새로운 개종자는 성스럽고, 주의 깊게 계획되고, 또 영적으로 고양시켜 주는 침례식을 마땅히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찬송가, 특별하게 준비된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이 의식과 그리스도의 중요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 의식이 속죄를 유효하게 만드는 의식입니다. 선교사 여러분, 침례 기록에 대한 목표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 침례의 의미와, 이 침례가 새로운 회원의 인생에서 의미해야 하는 바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르치는 동안 내내, 선교사들은 구세주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사에 대해 간증해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원리에 대해 정기적으로 간증해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중심이 되는 이 교리에 대해 간증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간증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여러분이 진리를 선포할 때 그 간증이 구도자들의 무의식 속의 기억, 즉 그들이 과거에 이 진리를 들어 본 적이 있다는 기억의 반향을 불러 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그들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간증은 한 가지 위대한 유산, 곧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천국 회의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간증을 일깨웁니다. 전세에서 있었던 그 회의에서,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계획의 설명을 들었으며 또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게 될 역할에 대해 들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구도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전하고 있는 간증만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간증, 즉 그분에 대한 그들 자신의 간증을 포함해 그 이전에 전해진 간증들까지 듣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첫째 지체를 지켜서 둘째

지체를 갖는 특권을 얻은 충실한 사람들 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도자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그들의 간증의 권세를 가지고 한때 사탄을 이긴 적이 있는 용사들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⁴

더욱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⁵에 관해 증거할 때,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성신을 불러오게 됩니다. 구세주께서는 직접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제[구도자]에게 불과 성신을 보내시어 증거하시리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시고 성신은 제[구도자]에게 아버지와 나를 증거하리니, 아버지와 나와 성신은 하나이니라 ...

“... 이는 나의 가르침이라. 누구든지 이 위에 세우는 자는 나의 반석 위에 세우는 자라. 지옥의 문이 저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요.”⁶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유로 자주, 그리고 강하게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성신이 전하는 신성한 간증의 권능이 토론에 부여되고 또 그 권능에 더해진 우리의 간증이 뜨겁게 타올라 구도자의 가슴 속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신성한 간증은 모든 새로운 개종자들이 그 위에 기초를 쌓아야 하는 반석이 됩니다. 기쁨 부음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이의 속죄에 대한 이러한 간증만이 지옥의 문을 이길 것입니다.

성실하게 경전을 공부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명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성구들을 숙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진리보다 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영혼에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전임 선교사들과 회원 선교사들에게, 특히 몰몬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공부하고 또 가르칠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편파적인 견해일 수 있으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제가, 선교사였던 시절에 몰몬경과 몰몬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존귀하심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구세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몰몬경은 문자 그대로 하나의 새로운 성약 또는 또



물몬경은

과거에도 선교사의
첫째가는 도구였으며
이 경륜의 시대에도
여전히 가장 위대한
도구입니다.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약”으로 “타락했으매”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를 통해 “구속을 얻을 것이요, 구속을 얻으려는 인류도 모두 다”⁷ 그러할 것이라는 점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몬경의 예언자들의 간증

니파이가 그의 성역의 초기에 했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저들의 죄로 인해 주를 값 없이 여기어 주를 채찍질할 것임에, 주께서는 이를 참으실 것이요, 주를 매로 칠 것임에 이를 또한 참으시리라. 참으로 사람들이 주께 침을 뱉었으나 주께서는 이를 참으실 것이니, 오로지 인간들을 향하신 사랑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으로 견디시리라.

“...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천사들이 말씀하신 대로 악인의 손에 몸을 내어 주실 것이요, 지노크의 말씀대로 높이 들리우실 것이요, 니움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박히실 것이요, 지노스의 말씀대로 무덤에 묻히실 것이라 ...

“이러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를 것이라고 예언자 지노스는 말씀하셨으며, 땅의 바위 암석은 울림으로 깨어질 것이요, 땅이 흔들림에 바다의 섬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도다 라고 울부짖으리라 하시니라.”⁸

또는 타락과 속죄에 관해 이틀에 걸쳐 설교를 했던, 니파이의 훌륭한 동생 야곱의 다음 말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음흉한 괴물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길을 마련하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위대하지 아니하뇨. 진정 저 괴물은 지옥이요, 죽음이며, 내가 이를 육신의 죽음이요 영의 사망이라 부르는데다 ...

“주는 주의 음성을 따르는 모든 인간을 구하시려 세상에 오시나니, 보라 그가 만민의 고통 곧 아담에게 속한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고통을 겪으실 것이요,

“주께서 이같이 고난을 겪으심은 만민에게 부활이 이르게 하사 ...

“또한 주는 만민에게 명하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온전히 믿는 신앙으로 회개해 그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 하셨으며, 그

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시었고,”⁹

마지막 예로서 위대한 족장 리하이의 다음 말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성스러우신 메시아의 뜻 안에 성스러우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오시나니, ...

“보라, 주는 죄 값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어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지닌 모든 자를 위해 율법의 뜻을 이루시나니, 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도 율법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느니라.

“그러하매,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육신으로 하나님 면전에 거할 수 없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느냐. 거룩하신 메시아는 육체를 따라 생명을 버리시나, 영의 권세로 생명을 다시 취하시, 일어설 자 중에 첫째가 되시어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저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사, 만 인류를 위해 중재하시어 변호하시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고,”¹⁰

여러분은 분명히 이러한 예들이 바로 물몬경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간증들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아마도 이 정도면 여러분이 신성한 모든 기록에 흐르고 있는 시급하고도 감명 깊은 주제를 이해하시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몬경은 과거에도 선교사의 첫째가는 도구였으며 이 경륜의 시대에도 여전히 가장 위대한 도구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모든 경전에서 뿐만 아니라 물몬경을 통해서도 속죄를 가르친다면 우리 자신의 삶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킬 것이라고 간증드립니다.

속죄와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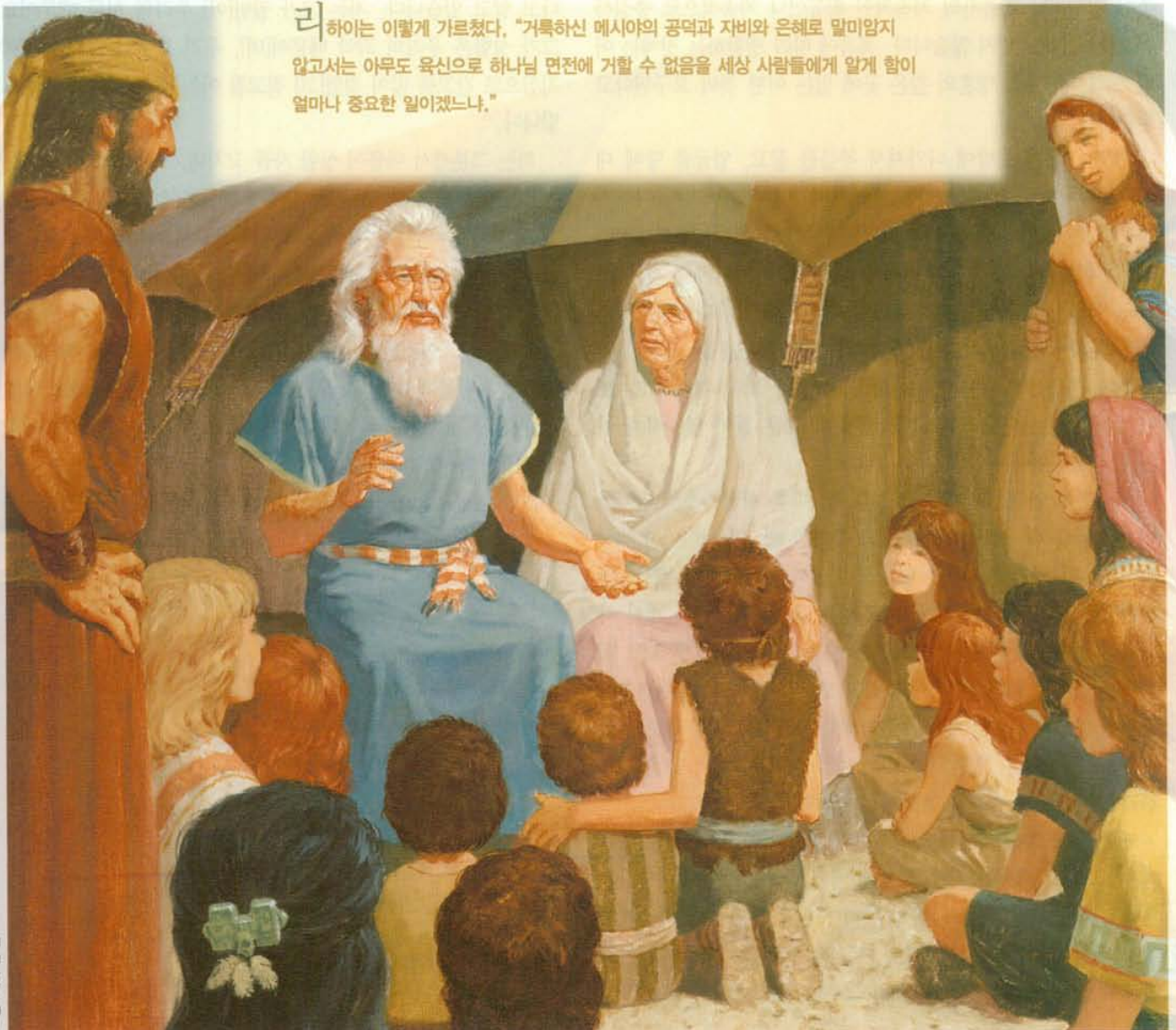
어떤 형태로든 선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우리가 더 빨리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 밤낮으로 침례를 주느라고 물에 흠뻑 젖어서 폐렴에 걸릴까봐 걱정하는 것이 선교 사업의 유일한 걱정일 수는 없을까?

저는 이 점에 대해 매우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서 이것을 말씀 드립니다. 저는 선교 사업이 결코 쉽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작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값싼 경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이것은 진리이며, 그분께서는 우리의 위대하고 영원한 머리아픔입니다. 구원이 그분에게 결코 쉽지 않았을진대, 어떻게 우리

에게 쉬울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들과 선교 책임자들은 겟세마네에서의 고통의 시간을 단 몇 분이라도 경험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면서 고통을 느끼셨던 것처럼, 선교사들과 선교 책임자들도 적어도 한두 발짝 정도는 갈보리 언덕을 향해 걸어야 할 것입니다.

저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그러한

리하이는 이렇게 가르쳤다.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육신으로 하나님 면전에 거할 수 없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느냐."





저는 우리가
물문경을 통해
속죄를 기르친다면
우리 자신의 삶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킬 것이라고
간증드립니다.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경험에 비교될 만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비교는 주제넘은 것이며 신성한 것을 모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사들과 구도자들이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미 치러진 값에 대해 무엇이랄도 알기 위해서는, 그 값의 조그마한 일부라도 치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저는 선교 사업이 이제까지 쉬었다거나 게중이 쉽거나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이나 지속적으로 충실하는 것이 쉽다고 믿지 않습니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에는 어떤 노력, 즉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것이 요구된다고 믿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밤에 나가셔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모든 땀 구멍에서 피를 흘리시며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¹¹라고 외치셨다면, 구원이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좀더 쉬운 길이 없을 까라는 의문을 가지신다면 그와 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여러분이 처음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보다 위대하고, 보다 위엄 있는 분이 매우 오래 전에 더 쉬운 길이 없는지를 이미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과 싸우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여러분을 침 뱉고 쫓아낼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삶, 곧 지금까지 유일하게 깨끗하고 완전했던 삶과 유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이 여러분의 슬픔과 고난을 모두 알고 계시다는 점에서 여러분은 당당해지고 또 감사를 느껴야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겻세마네를 통과하며 또한 갈보리 언덕 위에 있습니다. 영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그분,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통하는 길입니다.

저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살아 계신, 육으로 난 독생자라는 점을 간증합니다. 저는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한² 이 예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복음의 온전한 승리는 바로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

리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첫번째 일요일에,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동산지기를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녀는 에덴을 경작하고 또 겻세마네의 고통을 이기신 동산지기, 우리에게 생명의 나무를 주셨던 동산지기를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임을 선언합니다. 저는 그분께서 죽음으로 들리웠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들리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우리 모두의 범법을 짊어지심으로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분]이셨음을 간증드립니다.¹³

저는 그분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모든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마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갇힌 자에게 옥의 문을 여시기 위해 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¹⁴ 저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름에 여러분이 충실하게 응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마르게 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자유롭게 하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것이 선교 사업과 관련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약속이며 또 여러분이 세상에 전할 메시지입니다. □

2000년 6월 20일 프로보(유타 주) 선교사 훈련원에서 하신 말씀

주

1.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117쪽 참조.
2. 요한복음 14:6.
3. 신앙개조 제4조.
4. 요한계시록 12:10~11 참조.
5. 고린도전서 2:2.
6. 니파이삼서 11:35~36, 39.
7. 모세서 5:9.
8. 니파이일서 19:9~10, 12.
9. 니파이이서 9:10, 21~23.
10. 니파이이서 2:6~9.
11. 마가복음 14:36 참조.
12. 사도행전 5:30 참조.
13. 이사야 53장; 모사이야서 14장 참조.
14. 이사야 61:1~3 참조.

가장 훌륭한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가장 중요한 단계

에프 데이비드 스탠리

전임 유타 바운티볼 성전장 및 전임 칠십인 제이 정원회 회원

여러분의 선교 사업에 대한 준비 또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어떤 준비도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다른 수백 명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짐과 알렉스는 그들의 우편물이 도착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주 전에 선교사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의 부름장이 도착할지도 모릅니다.

짐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했고, 알렉스는 주택 건축업자를 위해 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어머니로부터, 본부에서 하얏고 커다란 서류 봉투가 도착하더라도 열어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짐은 목록 비누를 신선한 야채와 같이 포장할 뻔했으며, 알렉스는 몇 번씩이나 널판지를 너무 작게 잘랐습니다.

하얏고 커다란 봉투가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두 젊은이 모두 하루 일과를 끝내자마자 집으로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가족들이 그들 주위를 둘러싸고, 그들은 오래 기다렸던 부름장을 열어 보았습니다. 기대감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두 젊은이 모두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느꼈고, 주님의 부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흥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다음 준비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가족은 상세한 점검표를 만들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둘 시기 정하기, 옷과 필요한 물건 사기, 성찬식 준비, 가족 모임 개최—저런! 성전에 가는 일을 빠뜨릴 뻔했군요. 그러나 아쉽게도 가족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행사로 성전에 가는 일을 강조했습니다.

성전이 중심에 있습니다

성전에 가는 것이 원래의 취지대로 여러분의 선교 사업과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되어야 한다면, 그 일은 여러분이 선교 임지로 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적은 점검표의 한 가지 항목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1907~1995)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만큼의 가치를 지닌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엔사인*, 1995년 3월호, 65쪽) 그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을 준비시켜 합당하게 성전에 가게 하고 그 경험이 선교사의 부름을 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되게 합시다.”(“성전 참여를 권고 받는 사람들”, *성도의 벗*, 1995년 5월호, 6쪽) 그리고 고든 비 형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성전과 그 안에서 집행되는 의식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극치를 나타냅니다.”(“선교 사업과 성전과 청지기 직분에

관해”,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57쪽) 오직 성전에서만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축복들이 각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오직 성전에서만 신권의 충만함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핵심적인 모든 일들은 성전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하나인 엔다우먼트를 통해 여러분은 “높은 곳에서 임하는 능력”(교리와 성약 38:32)으로 무장하게 되는데, 이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선교 임지에서 가르치게 될 행복의 계획이 성전에서 가장 신성하고 함축적인 방식으로 제시됩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의식들과 여러분이 맺게 될 성약에 관해 성전 밖에서는 말하지 않을 것을 성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전에서 맺는 성약에 순종한다면, 영원한 축복이 선교 임지에서 함께할 것이며 또 여러분의 인생 내내 함께할 것입니다.

성전에 가기 위한 준비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은 거룩한 경전에 담겨져 있는 성전에 관한 교리들을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성전에서 맺게 될 영원한 성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





영적인 충분한 영양분 이외에도
선교사 훈련원은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한다. 맨 왼쪽: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 왼쪽: 멕시코 선교사
훈련원에서

선교사 훈련원은 몇 개나 있습니까?

전 세계에 15개가 있으며 훈련원이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영국, 과테말라,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스페인, 우타 프로보.

어느 훈련원으로 가게 됩니까?

선교사 부름을 받을 때, 어느 훈련원으로 가게 되는지 통보받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본국의 교사들에게서 훈련을 받고 자국 선교사들과 함께 활동하게 되며,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과 팀을 이루어 가르치면서, 지역 사람들과 문화에 대한 직접 경험을 쌓습니다. 여러분 중 대부분은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으므로, 훈련원에 약 3주 정도 있게 될 것입니다. 언어 훈련이 필요한 선교사들은 약 8주간 머물게 됩니다.

어떤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게 되든, 여러 지역에서 온 선교사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여러분은 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테말라 출신의 안나 빅토리아 오르도네스 레게나 자매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훈련원에서 칠레 출신의 동반자와 함께 지내고 있으며 우루과이에서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도착한 순간부터 영을 느꼈습니다. 저의 간증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은 전임 선교사인 동반자와 선교사 훈련원장, 귀환 선교사인 교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교리를 공부하고 영으로써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을 가르치면서 물문경과 기타 경전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선교사 토론을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언어 훈련을 받습니다. 성전에 참여합니다. 영적 모임에서 총관리 역원이나 지역 관리 역원이 여러분에게 생방송이나 위성 중계, 비디오 등을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임 선교사로서 지녀야 할 합당한 태도와 규칙 그리고 선교사의 일상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신체 단련을 위해 운동을 하고,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며, 식사하고, 세탁하고, 편지 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선교 지역에서 자신감과

겸손, 신앙과 확신, 그리고 복음 지식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기르치는 기술, 언어 능력과 문화적인 이해를 갖고 선교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선교사 훈련원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페루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볼리비아 출신의 엘루테리오 퀴스페 페레스 장로: “제가 정말 이곳 선교사 훈련원에 있고 또 선교사 명찰을 달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뉴질랜드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서 사모아 출신의 윌리엄 사무엘 톨라니 메레디스 장로: “처음에는 긴장했었지만 지금은 편안합니다.”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최병용 장로: “주 섬기라 라는 비디오를 보고 크게 감동 받았습니다. 그 비디오는 제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60,000명의 선교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동반자를 좋아하게 될까요?

친구입니다. 스페인 선교사 훈련원에



여러 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한 뒤 운동 할
기회를 갖는다. 아래: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사 훈련원에서
오른쪽: 멕시코 훈련원에서



있는 미국 유타 주의 조셉 토마스 밀러 장로: “저는 스페인어를 공부한 적이 없었지만 제 동반자는 6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는 제가 언어, 복음 그리고 기타 다른 것들을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동반자가 아니라 좋은 친구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그의 동반자였던 사무엘 데이비드 노튼 장로는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빌러 장로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로부터 배운 겸손과 근면이라는 교훈은 참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인내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우루과이 출신의 에스테반 호세 벤추라 장로: “제 동반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이는 방법을 제가 알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인내심을 보여주었고, 토론을 배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러시아 출신의 율리아 블라드미르브나 미할레바 자매: “24시간 동안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배웁니다.”

영의 언어. 영국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김벌리 모니카 존슨 자매: “저는 불가리아 출신인 저의 동반자 이바 페트코바 자매에게 감사 드립니다. 우리 그룹에는 12명의 자매들이 있는데 모두 8개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각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언어의 장벽이 있지만 만국 공통어인 영의 언어를 통해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국어로 기도를 하거나 영어로 간단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영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하나가 됩니다.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체코 공화국 출신의 야나 헤들리노바 자매: “이곳에는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영은 매우 강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해낼 수 있을까요?

처음엔 힘이 듭니다. 페루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페루 출신의 호세 루이스 아구일라 장로: “제가 선교사 훈련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 두 가지는 음식, 그리고 이곳에서 느끼는 아름다운 영입니다. 가장 힘든 점은 생활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하지만, 쉬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는 데 힘이 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페루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칠레 출신의 오스카 이그나시오 페레스 아구일레라 장로: “저에게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일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규칙들은 우리가 책임감 있게 되고 성공할 수 있게 도와 준다는 것을 압니다.”

집 생각을 떨쳐버림. 과테말라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크리스티안 로란도 에스칼란테 로메로 장로: “집에서 멀리 떠나 있으므로 이곳에서는 편지를 받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동반자가 늘 제 곁에 있기 때문에 힘이 됩니다. 선교사 훈련원 원장님은 저를 손자처럼 생각하고 조언도 해 주십니다. 저는 정말로 그분을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동안
선교사들은 성전에 갈 기회가 있다.
왼쪽: 스페인 마드리드 성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돌보아 주십니다.”

제 곁에.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미국 유타 주 출신의 코리 니그넬 장로: “저는 하나님께서 제 곁에 계시고 친구들과 가족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페루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볼리비아 출신의 호세 카를로스 페레스 수비아타 장로: “훌륭한 선교사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습관과 규칙을 배우고 싶습니다. 훈련원에서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분 곁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정말로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러한 언어 교육 기관은 없습니다.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폴란드 출신의 워즈텍 크르지스토프 바스치크 장로: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것처럼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는 교육 기관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신의 영향 아래서 가르침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저는 학교에서 5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지만 제 옆에 앉아 있는 브라질 출신의 한 장로는 전에

영어를 배운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훈련원에서 단 한 달을 보낸 지금 그는 저만큼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 문화 안에 동화되십시오. 브라질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다니엘 보코보이 장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그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문화 안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지역의 전임 선교사들과 전도하러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을 하는 가운데 진정한 경험을 합니다.”

그곳의 수업과 모임들은 어떻습니까?

교사들은 확신을 줍니다. 멕시코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멕시코 출신의 리즈베스 아드리안 마르티네스 에르난데스 장로: “저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제가 열심히 일한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는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속죄를 이해함. 페루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페루 출신의 바엘리타 카르멘 이투

자 카사 자매: “우리 반에서는 속죄를 설명하는 요지를 적어보라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속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과제를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제를 마치지 못한 사람은 비단 저뿐이 아니었습니다. 과제를 마칠 기한이 되었을 때 교사들이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과제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리와 성약 19편 16절부터 19절까지 공부했으며,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해 갖고 계신 위대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장님과 함께 있는 것. 일본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일본 출신의 토모미 하라 장로: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훌륭한 선교사 훈련원 원장님, 그리고 그분의 자매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있을 때면 저는 언제나 영을 느낍니다.”

총관리 역원의 말씀을 들음. 페루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칠레 출신의 리카르도 안드레스이바네스 푸엔테마비다 장로: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이라는 비디오를 보았을 때 저는 특별히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께서 거룩한 숲에서 전하신 간

멕시코
과테말라

★ 도미니카 공화국

한국 ★ 일본

★ 콜롬비아

★ 페루

★ 브라질

★ 칠레

★ 아르헨티나

★ 영국

★ 스페인

★ 필리핀

★ 뉴질랜드



★ 유타 주, 프로보



현재 전 세계에 운영 중인 선교사 훈련원

증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큰 기쁨을 느꼈으며 그 분의 눈에서 사랑과 평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 출신의 아버가일 레이 바바가 자매: “방송을 통해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리셀 벨라드 장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영으로 가득 찼습니다.”

브라질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미국 애리조나 출신의 벤자민 에프 가드너 장로: “우리는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녹화한 비디오를 시청했습니다. 그 말씀은 참으로 강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에 관해 거의 매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성전에 가지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갈 준비를 함. 과테말라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온두라스 출신의 칼멘 마리아 라모스 수니가 자매: “이곳에서 보낸 첫 일요일에 우리는 성전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 금식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이후로 저는 영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비회원인 저의 가족이 곧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강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전. 일본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일본 출신의 시치코 미야가와 자매: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동안 성전에 갔던 일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저는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고 좀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기쁨을 느끼도록 도움. 과테말라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과테말라 출신의 레슬리 마리아 구스만 말도나도 자매: “성전에서 의식에 참여하는 동안 저는 소망, 확신, 사랑, 감사 등을 느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승영에 이르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기쁨을 느끼도록 돕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은 정말로

“삶을 변화”시켜줍니까?

시작일 뿐. 스페인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미국 유타 주 출신의 네이던 크레이븐 장로: “10년 동안 비활동 회원으로 있다가 다시 교회에 돌아온 지 1년 반밖에 안된 저는 복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2개월 전의 자신과 비교하면 지금의

저는 거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간증.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미국 아이다호 출신의 브레트 맥스필드 장로: “어느날 밤 영적인 모임을 마치고 난 우리 구역은 한 방에 모여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제 생애에 그렇게 강한 영을 느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함. 영국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영국 출신의 니겔 모리스 장로: “이곳에서의 저의 영적인 성장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랑, 신뢰, 확신 그리고 존경의 분위기 속에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이 여행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선교 사업은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일 뿐입니다.”

속죄를 느낌. 브라질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브라질 출신의 에바닐다 고메스 도나스키멘토 장로: “이곳에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크게 성장합니다. 저는 예전에 속죄를 쉽게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것을 마음속에 느끼고 있습니다.” □

모험 속으로

십

이사도 정원희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잡니다.”(이번 호 15쪽 참조)** **다른 어떤 위대한**
 는 이렇게 썼습니다. “선교 사업을 시작할 **모험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교 사업은 준비와 연습과 실천**
 때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최선의 노력을 요구합니**

어떤 큰 모험을 할 때와 같은 느낌, 즉 설
 레임, 얼마간의 걱정, 그리고 어느 정도
 의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선교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미지의 세계로 걸어 들어



다. 그러나 다음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선교사로서의 봉사를 통해 오는 기쁨만큼
 실제적이고 인생을 변화시켜 주는 모험
 은 거의 없습니다.

사랑의 보물

로미 바잘라 코테라

특 별했던 그 오후는 아직도 어제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일요일 모임 동
 안, 미소를 짓는 한 부인의 옆에 앉았습니
 다. 그 당시는 오전과 오후에 모임을 가졌
 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옆에 머물러 있도
 록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겨우 일곱 살이었고 몹시 피곤했습
 니다. 저의 눈은 감기기 시작했으며 그 따
 뜻한 손을 꼭 쥐고 있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잠들어 버렸습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 제가 잡고 있던 손은 없었습니다. 눈물
 이 흘러 내렸으며 저는 몹시 슬펐습니다.

그 자매님의 이름은 에이본 콤포튼이었
 습니다. 자매님과 남편인 멀린은 항상 미
 소를 짓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사랑이 감
 돌았습니다. 지금 눈을 감아도 그 분들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반에서

그 분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들
 에 관한 이야기는, 정의만 어린이들에게
 사랑에 대해 가르치는 제가 아는 가장 좋
 은 방법입니다.

그 분들은 한 동안 우리에게 봉사하기
 위해 그 분들의 조국을 떠나 페루로 오셨
 습니다. 그 자매님은 우리 말을 잘 못했지
 만 남편은 우리 중 일부보다도 우리 말을
 아주 잘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언어 실력
 에 감탄했으며 그가 우리의 언어와 문화
 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콤포튼 자매님을 사랑하
 기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
 만 처음 일요일 초등학교에서부터라고 생
 각됩니다. 그 자매님은 우리에게 “교회에 갈
 때”(어린이 노래책영어, 157쪽)를 가르

쳐 주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늘 그림을 보
 여주셨으며 노래 가사를 가르치시면서, 노
 래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
 습니다. 그 자매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소리 높
 여 찬양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신다고 하
 셧습니다.

또 한번 우리는 성찬식 모임을 하는 동
 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어가
 달라서 많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서로 의
 사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임을 하는
 동안 자매님은 종지와 크레용을 꺼냈습니
 다. 무엇인가 글씨를 쓸 것이라고 생각했
 지만 자매님은 “엄마를 그려보자”라고 속
 삭였습니다. 자매님은 작은 원을 그렸습니
 다. 그런 다음 자신의 눈을 가리키면서 종
 이와 크레용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콤포튼 자매님은 종지와 크레용을 꺼낸 뒤
 “엄마를 그려보자”라고 속삭였습니다.**



눈을 그리라는 뜻으로 이해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다시 크레용을 건네주자 자매님은 머리카락을 그렸습니다. 제가 옷을 그렸고, 자매님은 팔을 그렸습니다. 결국 우리 둘은 엄마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림을 엄마에게 보여드렸고 저는 콤프톤 자매님을 꼬옥 안았습니다.

자매님에게는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 해 줄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종 자매님이 직접 쓴 어린이 이야기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날 자매님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에 관해 자매님이 그린 그림들에 색칠을 했습니다.

콤프톤 장로님과 자매님이 떠나야 할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묻자 엄마는 그들에게는 그들을 보고싶어 하고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에 대해 생각하고, 또 제가 엄마의 곁을 오랫동안 떨어져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그 때 저는 비로소 콤프톤 자매님을 보내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편지가 끊긴 적이 없었으며 우리의 우정은 더욱 깊어 갔습니다. 콤프톤 자매님에 대해 생각할 때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한복음 15:12)

저는 초등학교에서,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초등학교 어린이가 감춘 사탕, 꽃 또는 작은 인형과 같은 보물 찾기 놀이를 하던 즐거운 여름날들을 기억합니다. 보물을 찾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 인생에서 아름답

고 귀중한 보물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 가장 큰 보물 가운데 하나는 두 사람의 특별한 선교사 — 저의 친구인 에이본과 멀린 콤프톤 — 의 사랑일 것입니다.

로미 바잘라 코테라는 페루 리마 리마탐보 스테이크 산타 크루스 와드의 회원이다.

뜻밖의 사건

왕슈추안

저는 1991년 대만 타이난에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2년 후에 저는 직장 때문에 타이베이로 갔습니다. 복음에 대해 더 지식을 얻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종교 교육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저를 뜻밖의 사건으로 이끌었습니다.

종교 교육원에 등록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우리는 교리와 성약을 공부했으며 저는 그곳에서 성전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성전에 가고 싶은 큰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가는 문제에 대해 감독님께 말씀 드렸을 때 그 분은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 주셨습니다. 1995년 6월에 저는 스테이크장님과 접견을 하러 갔습니다.

처음에 스테이크장님은 제가 성전의 거룩한 성약을 맺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준비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마음 속으로 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몹시 낙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부탁하면서 감독님이 저를 보내신 일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가능성에 대해서만큼은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그렇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접견이 끝날 무렵 그 분은 이렇게 물어 보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형제님에게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신다면 나가시겠습니까?”

“예” 하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성전 추천서도 받고 저의 엔다우먼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심도 했습니다.

저의 결정을 듣고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큰 형님은 제가 만약 선교사로 나가다면 앞으로 가족과의 인연은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니파이가 약속한 바와 같이 주님께서 제게 시키실 일을 위해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니파이일서 3:7 참조) 저는 1996년 5월에 대만 타이쥔 선교부로 갔습니다. 떠나기 직전 형님은 저를 끌어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선교 사업을 가는 것에 반대했던 것은 저와 헤어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가족은 저를 모두 지지해 주었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저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간증은 성장했으며 이 사업의 중요성, 즉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일의 의미는 저의 정신과 마음에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친 이 시점에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제가 끝까지 견디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저는 선교부장님께서 곧 귀환하게 될 선교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분은 우리 모두가 충실해 언젠가 다시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목표를 자주 생각해 봅니다. 특히 시련을



저와 동반자는 어느 작고 초라한 집에서
아이들 몇 명이 뛰어나오면서 이렇게
외쳤을 때 놀랐습니다.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이들 후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갔으며 그녀가 교회 회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오래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아무도 그녀에게 교회에 나오도록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과 자녀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들려 주었으며 그들은 2주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식에서 한 아이는 기뻐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변화되었다고 말했으며 주님께서 선교사들을 집으로 보내주셔서 매우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장난으로 축복을 구했지만 주님께서는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 가족은 교회에서 계속 강하고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과 같습니다. 알지 못한 채,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축복을 구합니다. 그들이 단순히 구하기만 해도 그분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린 아이라.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가지고 계시며 또 너희를 위해 준비하셨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도다."(교리와 성약 78:17) □

레슬리 아우구스토 토바르 코레아는 에콰도르 밀라그로 스테이크 엘 포르베니르와드 회원이다.

겪을 때 그렇습니다.

저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배울 수 있는 경험을 하도록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많은 경험들은 놀랍고도 예기치 않은 것들이었지만 그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제가 그렇게도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종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슈추안은 타이완 타이베이 중앙 스테이크 타이베이 제4와드 회원이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레슬리 아우구스토 토바르 코레아

에콰도르 북동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오타발로는 에콰도르 키토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동안 경험했던 일들로 인해 제 기억 속에 더욱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1996년 9월 어느 오후에 저는 동반자와 함께 약속 장소로 걸어가고 있

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작고 초라한 집에서 아이들 몇 명이 뛰어나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우리는 깜짝 놀라서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재빨리 집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을 따라 집안으로 들어가니 한 부인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녀를 보고 놀란 것만큼이나 그녀도 우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쳤군요."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 우리는 그 부인의 이름을 적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리아호나

2001년 10월호

활용하기

유용한 아이디어

■ “행복한 가정의 표시”, 2쪽.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말씀한 행복한 가정의 표시 중에 하나는 배움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책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들은 어떻게 학문과 신앙을 기르도록 격려해 주니까?

■ “선교 사업 — 영적인 모험”, 12쪽.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는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사랑하는 것들을 희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축복이 어떻게 희생을 능가합니까?

■ “선교 사업과 속죄”, 26쪽.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가끔 선교사들에게 구도자와 토론을 한 결과로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는 “구도자들이 침례를 받기 전에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 두 가지”를 선교사들이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며 그것은 왜 구도자에게 뿐만 아니라 선교사와 회원에게까지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 “도랑에는 황소가 없어요”, 친14쪽. 어째서 부모, 교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이번 호의 주제들

- 가르침 48
- 가정 복음 교육 9
- 가정의 밤 48
- 가족 관계 2
- 가족 역사 친10
- 간증 2
- 개종 26, 44
- 경전 공부 2
- 교육 2
- 기도 2, 친14
- 물문경 26
- 방문 교육 22
- 사랑 2, 44
- 선교사 훈련원 38
- 선교 사업 10, 12, 17, 20, 24, 26, 34, 38, 44, 친2, 친8
- 성약 25, 34
- 성전과 성전 사업 34, 44, 친10
- 성찬 25
- 속죄 26
- 순종 친14, 친16
- 신앙 12, 26
- 신약성서 이야기 친4, 친6
- 영원한 관점 친2
- 예수 그리스도 26, 친4, 친6
- 예언자 10, 33, 친12
- 준비 17, 20, 24, 34, 38, 친8
- 초등학교 친12
- 축복 친12
- 축복사의 축복 친2
- 친구 17
- 표준 33
- 희생 12

사진 촬영: 제리 그랜스



긍정적인 영향

여러분의 삶에 훌륭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리아호나에서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과 그가 어떻게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모집합니다. 긍정적인 영향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과 기사, 그리고 경험담을 리아호나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전자 우편 주소: CUR-Liahona-Imag@ldschurch.org 이름, 주소, 전화 번호, 와드와 스테이크(또는 지부와 지방부)를 기입해 주십시오.



사진 삽화: 크레이그 다이몬드

부부 선교사

“부부 선교사가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무궁 무진합니다. …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 어떤 기술이나 재능이라도 거의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 성숙한 자매나 부부가 선교사로 기꺼이 봉사하기를 원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신권 지도자에게 알리는 것은 참으로 적절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하시도록 권고합니다.”

—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부부 선교사: 봉사할 시간”,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31쪽.



“우리 선교사들은 여러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당당하고 기품있게 나아가 마침내 모든 대륙에 스며 들고,

모든 기후의 땅을 찾으며, 모든 나라를 휩쓸고, 모든 사람의 귀에
울릴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는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선교 사업에 관한 말일의

예언자들의 말씀”, 10쪽과 리아호나 이번 특집호에 실린

선교사에 관한 다른 기사들 참조.

